

過剩人口의 壓力

—韓國의 경우를 中心으로—

邊 衡 尹

目 次	
1. 序 言	4. 非近代的인 產業構造
2. 龍大한 不完全就業者의 存在	5. 低賃金과 甚한 賃金格差
3. 中小企業·零細經營의 높은 比重	6. 結 言

1. 序 言

人口學者 Spengler 에 의하면 人口成長은 (1) 土地와 資源에 대한 壓力의 增加 (2) 資本이 蓄積될 수 있는 率의 減少 (3) 資本形成率이 주어졌을 때에는 勞動力이 增加될 수 있는 率의 減少 등을 통해서 人間의 物質的 條件의 改善을 沮止시킨다고 한다.⁽¹⁾

過剩人口에 허덕이고 있는 人口過剩國의 경우에는 그 程度는 더 強할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는 人口過剩國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 人口問題는 深刻한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本論稿는 바로 이 點에 着眼하여 우리 나라에서 過剩人口의 壓力이 어떤 現象을 惹起시키고있는가를 究明하고 나아가서 普通 들어지는 過剩人口對策에 대해서 言及하기 위해서 試圖된 것이다. 確實히 過剩人口의 壓力은 여러가지 現象을 惹起시킨다. 簡單히 한 두가지만 생각하더라도 大都市에의 異常的인 集中, 食糧의 不足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本論稿에서는 經濟學的인 觀點에서 무엇보다도 優先해서 다룰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는 龍大한 不完全就業者의 存在, 中小企業·零細經營의 높은 比重, 非近代的인 產業構造, 低賃金과 甚한 賃金格差의 網만을 다루기로 한다.

以下에서는 이들 네가지를 簡單히 次例로 다루고 끝에 가서 普通 들어지는 過剩人口對策에 대해서 言及하는 順序가 取해진다.

(1) S. Enke, *Economic Development*, p. 355

2. 尠大한 不完全就業者層의 存在

過剩人口의 壓力은 于先 完全失業의 現象을 惹起시킨다. 우리나라의 完全失業者數는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人口調査」에 의하면 第 2-1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 年에는 496 千人, 1969 年에는 471 千人으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政府의 公式統計에 의해서 表示되는 完全失業者數는 작으며 또 第 2-2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完全失業率도 外國과 比較해

완전실업자와 18시간미만 취업자

<표 2-1> 단위 : 1000인

	경제활동인구 (A)	실업자 (B)	실업률 (B/A)	18시간미만 취업자 (C)	18시간미만 취업자율(C/A)
1963	8,652	705	8.1	693	8.0
1964	8,894	683	7.1	763	8.6
1965	9,199	677	7.4	674	7.3
1966	9,325	666	7.1	760	8.1
1967	9,504	590	6.2	632	7.1
1968	9,757	496	5.1	505	5.2
1969	9,818	471	4.8	320	3.3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조사」 1969

보아 그다지 큰 便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完全失業者는 「調査期間 中 1時間도 일에 從事하지 않았으나 일할 意思와 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求職運動을 行하고 있는 者」라

세계각국의 실업자와 실업률(1967)

<표 2-2> 단위 : 1000인

국명	실업자	실업률
한국	590	6.2
일본	630	1.2
버마	89.4	—
인도	2706.3	—
파키스탄	184.1	—
영국	599.1	2.5
독일	444.6	2.1
프랑스	196.1	—
이태리	689.0	3.5
스웨덴	28.8	1.7
미국	2975	3.8
캐나다	315	4.1
필리핀	961	7.2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조사」 1968

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

經濟活動人口 中 完全失業者가 아닌 者는 就業者로 나타난다. 따라서 完全失業者數가 작다는 것은 많은 經濟活動人口가 多少를 不問하고 어떤 일에 從事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그 中에는 第 2-1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 年에 505 千人, 1969 年에 320 千人이나 되는 18 時間以下의 短時間就業者가 包含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며 또 第 2-3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 年에서 1969 年까지의 7 年間을 平均해서 볼 때 6 月과 12 月사이에 就業者數에 3,139 千人이나 差가 생기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第 2-3 表

종사상의 지위별, 계절별, 성별 취업자

<표 2-3> 단위 1,000인

	총 수			자 영 업 주			가족종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63. 6-									
1969. 6(A)	—	—	—	3,381	2,728	653	3,699	1,121	2,578
1963. 12-									
1969. 12(B)	—	—	—	2,618	2,107	511	1,427	547	880
(A)-(B)	3,139	1,151	1,998	763	621	142	2,262	574	1,698

	상 고			임 고			일 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63. 6-									
1969. 6(A)	1,329	1,063	266	593	412	181	1,226	795	431
1963. 12-									
1969. 12(B)	1,484	1,170	314	613	423	190	937	721	216
(A)-(B)	△ 155	△ 107	△ 48	△ 20	△ 11	△ 9	289	74	215

資料：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査」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差를 만들고 있는 部分은 主로 家族從事者이며 또 女子就業者이다.

不完全就業者 내지 潛在失業者의 定義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또 測定方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3) 그러나 3,139 千人을 一旦 不完全就業者로 看做해도 大體로 無妨하지 않을가 생각한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는 3,139 千人的 不完全就業者가 存在하는 셈이다. 그러

(2) 우리나라의 完全失業者가 무엇을 意味하는가는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經濟論集」(1967. 9.) p.10 參照.

(3) 不完全就業의 定義와 測定方法에 대해서는 前掲「經濟論集」(1967. 9.) p.10 參照.

나 完全失業者를 除外한 經濟活動人口는 모두 就業者로 看做하고 있다는 點과 自營業主中 그 所得만으로는 生活를 維持할 수 없는 者가 相當히 存在한다는 點 등을 考慮한다면 不完全就業者數는 3,139 千人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龍大한 不完全就業者가 存在하는 것은 人口 或은 經濟活動人口의 增加에 比해서 經濟成長이 不充分한데 主로 그 原因이 있다고 한다면 龍大한 不完全就業者의 存在는 過剩人口의 壓力이 招來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結局 過剩人口의 壓力은 完全失業과 더불어 不完全就業의 現象도 招來하고 있는 셈이다.

3. 中小企業, 零細經營의 높은 比率

第 3-1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家 1 戶當 耕地面積은 9 段步에 不過하며 1 町步 未滿의 農家は 農家全體의 65%나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農業은 資本不足으로 해서 機械를 利用하는 일이 적은 말하자면 主로 手足의 勞動에 依存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어진 耕地面積에 대해서 投下하는 勞動量을 自由로

경지구모별 농가(1968)

<표 3-1>

	전 국	경 지 구 모	
		5단보 미만	1정보 미만
농 가 호 수	2,578,526	857,803	1,677,976
비 율 (%)	100%	33%	65%

농가호당 경지면적; 9.07 단보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69

중소제조업의 사업체수, 종업원, 생산액(1968)

<표 3-2>

	제 조 업 전 체	중소제조업 (5~199인)
사 업 체 수	24,109	23,555
비 율 (%)	100.0	97.7
종 업 원 수	748,307	404,906
비 율 (%)	100.0	54.1
생 산 액 (100만원)	769,077	275,261
비 율 (%)	100.0	35.8

자료: 한국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보고서」 1968

히 伸縮시킬 수 있다. 또 稻作을 中心으로 하는 關係로 그것의 經營은 季節的으로 繁閑이 甚하다. 그리고 또 農民의 離農이 不完全하고 不徹底하다. 따라서 離農하여 勞動者가 된 者라고 해도 그 大部分은 農村과의 關係를 끊고 있지 않으며 失業이라든가 病의 경우에는 歸農하는 수가 많다. 거기에 또 낡은 家族制度和 相扶相助하는 낡은 社會組織이 完全히 崩壞되어 있지 않다. 끝으로 우리 나라의 農業은 第 3-4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家·自·日雇型이며 特히 家族從事者의 比重이 큰 型이다. 따라서 過剩人口의 壓力은 農家의 分割 즉 耕作規模의 細分化和 주어진 耕作規模에의 過重한 依存의 現象을 招來하게 된다.

다음에 第 3-2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製造業에 있어서는 1968 年에 200 人未滿의 것은 事業體 全體의 97.7%, 從業員 全體의 54.1% 生産額 全體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其他의 産業에 대해서도 大勢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 商業에 관해 살펴보면 第 3-3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 年에는 419,638 의 商店 中에서 個人商店이 99.6%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中에서 常時從業員 4 人 以下の 것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性質이 類

소유별 상점수(1964)

<표 3-3> (1)

	총 계	법인기업	개인상점
상점수	419,638	1,584	418,054
비율 (%)	100.0	0.38	99.62

(2)

當時고용인의규모	개인상점수	비율 (%)
전체	276,770	100.0
4인미만	271,281	98.0
4~49인	5,471	2.0
50인이상	18	0.0

자료 : 경제기획원, 「상업센서스」, 1968

似한 個人「서비스業」에 대해서도 同一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上述한 바와 같은 程度로 中小企業, 零細經營은 우리 나라 經濟에 있어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職業에서 追放된 또 어떤 職業에 就業할 수 없는 人口가 가장 容易하게 職業을 求할 수 있는 곳이 中小企業, 零細經營인데 主로 基因한다. 즉 資本이라든가 技術을 갖지 않아도 生活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이 中小企業, 零細經營인데 基因한

(4) 鑛業·運輸業의 規模에 대해서는 商工部·中小企業銀行, 「中小企業白書」參照.

다. 勿論 中小企業은 그 性格上의 特殊性으로 해서 中小企業으로 머물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中小企業이 存在하는 限 過剩人口는 恒常 여기에 壓力을 加하게 된다.

結局 中小企業, 零細經營의 높은 比重도 過剩人口의 壓力이 招來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農業을 家·自·日雇型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第 3—4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製造業은 常雇·自·臨雇型이며 商業은 自·家·常雇型이다. 그러나 第 4—1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農業과 商業은 어디까지나 家·自型내지 自·家型이라는 點과 製造業에 있어서도 自營業主가 比較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A) 종사상의 지위별 농림업 취업자

〈표 3—4〉 단위 : 1,000인

	총계 (A)	총계 (B)	가족종사자	자영업주	日雇	(B)/(A)×100
1963.6~1969.6	6,703	6,537	3,386	2,347	804	97.5
1963.12~1969.12	2,893	2,734	1,128	1,328	278	94.5

(B) 종사상의 지위별 제조업 취업자

	총계 (A)	총계 (B)	常雇	자영업주	臨雇	(B)/(A)×100
1963.6~1669.6	799	664	328	182	154	83.1
1963.12~1969.12	1,038	836	417	246	173	80.5

(C) 종사상의 지위별 상업취업자

	총계 (A)	총계 (B)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常雇	(B)/(A)×100
1963.6~1969.6	971	902	648	169	85	92.9
1963.12~1969.12	1,108	1,026	730	209	87	92.6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査」

4. 非近代的인 産業構造

앞의 2 와 3 에서 龍大한 不完全就業者의 存在와 中小企業, 零細經營의 높은 比重이 過剩人口의 壓力에 基因함을 보았다. 第 4—1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龍大한 不完全就業者는 農林業, 製造業, 商業을 中心으로 中小企業, 零細經營에 갓들여서 家族從事者를 主로하여 自營業主, 雇傭者의 形態로 모든 産業에 걸쳐서 存在하고 있다.

第 4—3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林業, 製造業, 商業은 合쳐서 就業人口의 70% 以上을

각산업의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표 4-1〉 단위 : 1,000인

산업		총 수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常 雇	臨 雇	日 雇
농림업	1963. 6~1969. 6(A)	6,703	2,347	3,386	68	98	804
	1963. 12~1969. 12(B)	2,893	1,328	1,128	83	76	278
	(A)-(B)	3,810	1,019	2,258	△15	22	526
제조업	1963. 6~1969. 6(A)	799	182	70	328	154	65
	1963. 12~1969. 12(B)	1038	246	110	417	173	92
	(A)-(B)	△239	△64	△40	△89	△19	△27
상업	1963. 6~1969. 6(A)	971	648	169	85	33	36
	1963. 12~1969. 12(B)	1108	730	209	87	32	50
	(A)-(B)	△137	△82	△40	△2	1	△14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조사」

농업, 제조업, 상업의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비율

〈표 4-2〉 단위 : 1,000인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常 雇			臨 雇			日 雇		
	전체(A)	농+제+상(B)	(B)/(A) × 100	전체(A)	농+제+상(B)	(B)/(A) × 100	전체(A)	농+제+상(B)	(B)/(A) × 100	전체(A)	농+제+상(B)	(B)/(A) × 100	전체(A)	농+제+상(B)	(B)/(A) × 100
1969. 6	3,573	3,325	93.1	3,627	3,571	98.5	1,755	721	41.1	491	285	58.0	1,287	946	73.5
1969. 12	2,762	2,415	87.4	1,392	1,269	91.2	2,412	1,172	48.6	40.5	173	42.7	963	402	41.7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자 비율

〈표 4-3〉 단위 : %

연	전산업	1 차 산업			2 차 산업				3 차 산업				
		소계	농림업	수산업	소계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소계	전기통신업	개도생업	상업	운수보통업
1963	100.0	63.2	60.7	2.5	11.2	0.8	7.9	2.5	25.6	0.3	9.9	1.5	13.9
1964	100.0	61.9	59.8	2.1	11.2	0.7	8.2	2.3	26.9	0.2	10.5	2.0	14.2
1965	100.0	58.7	56.2	2.5	13.2	0.9	9.4	2.9	28.1	0.2	11.5	2.4	14.0
1966	100.0	58.2	56.0	2.2	13.0	0.9	9.9	2.2	28.8	0.3	19.3	2.1	15.1
1967	100.0	55.2	52.8	2.4	15.8	1.1	11.7	3.0	29.0	0.3	12.3	2.2	14.2
1968	100.0	52.5	50.1	2.4	17.4	1.2	12.8	3.4	30.1	0.2	13.1	2.5	14.3
1969	100.0	51.3	49.9	1.4	17.9	1.2	13.1	3.6	30.8	0.3	12.8	2.9	14.8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調査」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은 各各家·自·日雇型, 常雇·自·臨雇型, 自·家·常雇型이다. 그러나 第 4-1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月과 12月의 就業者數의 差에서 볼 때에는 農林業은 家·自·日雇型, 製造業은 自·家·常雇型, 商

일인당 실질소득수준별 산업구조

<표 4-4>

	일인당 실질소득 ¹⁾						
	I	II	III	IV	V	VI	VII
(1) 國數	1	7	6	5	5	4	4
(2) 비율							
A 그룹 ²⁾	14.4	3.43	27.9	51.1	49.7	57.5	61.2
M 그룹 ³⁾	40.3	34.52	0.3	20.7	22.0	16.4	15.1
S 그룹 ⁴⁾	45.3	41.7	41.8	28.2	28.3	26.1	23.7
(3) S 그룹안의 소그룹							
① 國數	7	6	5	5	4	7	4
② 비율 (%)							
T 소그룹 ⁵⁾	8.6	7.6	6.4	4.0	4.0	3.5	2.6
C 소그룹 ⁶⁾	51.1	11.4	11.5	8.0	8.2	6.1	5.8
T+C 소그룹	23.7	18.9	17.8	12.0	12.1	9.6	8.3
OS 소그룹 ⁷⁾	21.7	22.8	24.0	16.2	16.2	16.6	15.3

1) I1,700, II1,000, III600, IV400, V200, VI100,

2) 농업 및 수렵, 수산업등 포함.

3) 광업, 제조업, 건설업 포함

4) 모든 서어비스 활동 포함

5) 교통 통신 포함

6) 상업 은행업

7) 그밖의 서어비스자영업 정부서비스포함

자료 : S. Kuznets, *Six Lectures on Economic Growth* (日譯) pp. 54-55.

業은 自·家·日雇型이며 합쳐서 볼 때에는 그들은 第 4-2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家族從事者型인 同時에 自營業主型이다.

Kuznets 에 의하면 1 人當 實質國民所得이 높은 나라의 群에서 낮은 나라의 群으로 옮겨 감에 따라서 就業者에 關한 A 部門(第1次産業)의 構成比는 上昇하고 M 部門(第2次産業)과 S 部門(第3次産業)의 構成比는 低下한다. (S 部門의 小部門의 構成比도 低下한다.)⁽⁵⁾ 그리고 1 人當 實質所得이 높아질수록 構成比는 A-S-M 型에서 S-M-A 型으로 바뀌게 된다.

그에 의하면 A 部門이라든가 M 部門에서의 上昇은 特히 M 部門에 있어서 精巧한 資本設備를 갖는 大規模의 單位로 生産이 集中하는 것에 의해서 또 生産物當의 낮은 費用 따라서 勞動投入當의 높은 產出에 不可缺한 大規模操業의 繼續에 의해서 達成된다. 規模에

(5) S. Kuznets, *Six Lectures on Economic Growth*(日譯). pp. 52-58

있어서의 그와 같은 集中과 時間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繼續은 運輸・通信・配給등의 補助的 「서비스」를 大量으로 必要로 한다. 그들은 (1) 季節的 或은 其他的 影響을 받는 農產原料品の 供給과 生産過程에서 그들을 使用하는 것 사이 또 (2) 季節的인 或은 其他的 影響을 받는 最終生産物의 需要와 生産組織에서 그들이 繼續的으로 流出하는 것 사이에 있는 時間的・場所的인 間隔을 메꾸어 준다. 또 都市化의 增進은 政府「서비스」의 增大를 必要로 한다. 즉 教育을 받은 住民이라든가 勞動力의 需要는 教育에 關한 「서비스」活動을 增加시키고 經濟組織이 一般的으로 더욱 더 複雜함에 따라서 그 規制・統制・管理라는 方式으로 政府의 監督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1人當 實質所得의 上昇에 따라서 發生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最終消費者的 需要가 移行하게 되는 以上으로 A部門과 M部門의 集中化되고 專門化된 生産性이 높은 組織에게 必要한 補完物인 「서비스」活動에 대한 需要의 面에서 아마 보다 重要한 增大가 있을 것이다. S部門의 生産物에 대한 需要가 더욱 더 增加하고 S部門의 많은 小部門에서 就業者 1人當 生産性의 上昇이 A部門이라든가 M部門의 그것보다 若干 작다고 하면 勞動力이 移動하여 S部門의 構成比를 더욱 더 높이는 것은 쉽게 說明된다. 結局 發展한 나라에 있어서 勞動力이 S部門으로 移動하는 것은 經濟全體가 生産性의 보다 높은 水準으로 前進하는 것의 不可缺한 附隨現象이다.⁽⁶⁾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는 第 4—3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M 型이다. 製造業에 不完全就業者가 많다는 自體부터가 우리나라의 產業構造가 非近代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는 低開發國型 다시 말하면 非近代的인 것만은 事實이다. 그리고 또 龍大한 農林業人口가 停滯하고 있고 製造業과 商業人口가 漸增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또 다른 特徵을 이루고 있다. 「서비스」業人口中에 包含되어있는 關係로 明確치는 않지만 個人「서비스」業人口도 商業과 類似한 性質의 것이라는 點에서 미루어 보아 漸增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골에서 올라오는 일자리가 없는 女子들이 一旦 食母로 가는 것을 통해서도 어느 程度 짐작할 수 있다. 또 現在 都市生活에 대한 憧憬心이 많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勿論 이들 商業과 個人「서비스」業을 包含하는 第 3 次產業人口도 漸增하고 있다. 그러면 이 漸增은 A部門과 M部門에서의 높은 技術이라든가 生産性의 水準에 基因하는 需要에 의해서 要求된 增加라고 할 수 있는가? 勿論 그런 面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Kuznets가 이 面과 嚴然히 區別하고 있는 面 즉 土地에 대한 人口壓力⁽⁷⁾에 基因하는 增加라

(6) S. Kuznets, 前掲書. pp. 77—78.

(7) S. Kuznets, 前掲書, pp. 76, 79 參照. 그는 이 土地에 대한 人口壓力에 基因하는 增加의 M部門에서의 雇傭機會의 制約에 基因하는 增加를 더 들고 있다.

고 보는 것이 上述한 바에서 미루어 보아 더 妥當할 것이다.

이와 같이 過剩人口의 壓力은 不完全就業의 形態로 第3次産業人口도 增加시키며 또 나아가서 非近代의 産業構造를 招來하기도 한다.

5. 低賃金과 甚한 賃金格差

이미 2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完全失業者와 尙大한 不完全就業者가 存在한다. 이와같은 尙大한 過剩勞動力의 存在는 勞動市場을 恒常 購買者市場으로 만듦으로써 우리 나라의 賃金 水準을 低位에 머무르게 한다. 尙大한 過剩勞動力의 存在는 過剩人口의 壓力에 基因한다. 따라서 低賃金도 過剩人口의 壓力에 의해서 主로 招來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鑛業과 製造業을 平均한 값에서 보면 1968年에 勞動者의 賃金은 第 5—1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體로 月當 9千원이다. 따라서 1個月을 勞動해서 겨우 쌀 2가마도 못 버는 셈이 된다. 그 뿐 아니다. 1966年 1月 12日 京鄉新聞社說, 1968年 7月 25日 東亞日報 6面등을 보면 勞動者의 賃金이 얼마나 낮은 水準의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生活이 얼

광업과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

<표 5—1>		단위 : 100원	
	광업	제조업	광업 제조업 평균
1963	52	35	38
1966	87	58	61
1967	108	74	77
1968	100	89	90

자료 : 한국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보고서」 1963. 1966. 1967, 1968.

마나 悲慘한 것인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어쨌든 우리 나라의 勞動者들의 大部分은 現在 自己 혼자만의 生活조차 지탱해 나갈 수 없는 程度의 低賃金을 強要 當하고 있다. 原則的으로 말한다면 한 國民의 社會的 文化的 水準이 定해지는 것이며 賃金은 이 水準의 生活를 維持할 수 있게 하는 程度로 定해지는 것이 當然한 일이다. 우리 나라의 一般의 生活水準은 歐美諸國 日本등에 比해서 훨씬 낮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水準을 保障할 만한 賃金조차도 支拂되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實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低賃金이 意味하는 바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賃金은

國際적으로 比較해 보아도 顯著하게 低位에 있으며 또 相對적으로 보아도 낮다.⁽⁸⁾

우리나라의 賃金은 低水準인 同時에 規模別로도 甚한 格差를 가지고 있다. 이 格差는 바로 中小企業・零細經營의 存在에 基因한다. 앞의 3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中小企業・零細經營의 存在는 主로 過剩人口의 壓力에 基因한다. 따라서 甚한 規模別 賃金格差도 低賃金과 더불어 過剩人口의 壓力에 의해서 主로 招來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規模別 賃金格差를 보면 第 5—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년에는 小企業의 賃金은 大企業의 그것의 約 46.3%밖에 안된다. 日本을 제외하고서는 製造業의 경우에는 大企業에 대한 小零細經營의 賃金은 90% 내지 80%인 나라가 많다.⁽⁹⁾ 이에서 우리나라의 賃金格差가 甚함을 알 수 있다.

규모별 업체의 월평균 임금(1968)

〈표 5—2〉		단위 : 원		
구 모	광 업	제 조 업	전 체	
5~9 인	2,711(21.1)	5,242(48.7)	5,111(46.3)	
10~19인	3,618	6,886	6,671	
20~49인	5,288	7,067	6,877	
50~69인	8,426	7,677	7,724	
100—199인	8,086	8,506	8,518	
200~499인	10,409	9,760	9,833	
500인 이상	12,864(100.0)	10,768(100.0)	11,046(100.0)	

자료 : 한국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 보고서」 1968

6. 結 言

上述한 바에서 過剩人口의 壓力은 龍大한 不完全就業者의 存在, 中小企業・零細經營의 높은 比重, 非近代의인 産業構造, 低賃金과 甚한 賃金格差를 招來시키고 있음을 보았다.

完全失業者와 不完全就業者의 數를 縮少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따라서 이것을 可能케 할 만큼의 高度의 經濟成長이 繼續해서 要請된다. 그러나 이 高度의 經濟成長의 達成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招來要因인 過剩人口의 壓力으로부터 解放되기 위한 努力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現在 各國에서는 各種의 過剩人口對策을 講究・實施 中에 있다. 一般적으로 가장 簡單

(8) 前掲「經濟論集」(1967.9) pp. 13—14.

(9) 前掲「經濟論集」(1967.9) p. 19.

히 效果를 나타내는 直接的인 過剩人口對策으로서는 海外移民의 推進이 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繼續해서 海外移民을 推進해 왔다. 그러나 一見할 때에는 容易한 것 같지만 많은 成果는 期待하기 어렵다. 海外로 移民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相對國의 여러가지 事情 例컨대 人種問題·등에 基因해서 外國의 移民을 歡迎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保社部統計에 의하면 1970年 6月末 現在로 移民總數는 41,979人에 不過하다. 따라서 別로 크게 期待할 것이 못된다고 할수 있다.⁽¹⁰⁾ 結局 이렇게 보면 移民의 效果는 도리어 增加人口의 排出口를 찾는다고 하는 精神的인 것이거나 或은 그것에 附隨해서 移入國과의 親善關係를 더하여 文化的 交流를 促進하며 資本의 移動을 圓滑하게하며 貿易을 促進시킨다고 하는 副次的인 것인 셈이다. 이런 意味에서는 勿論 海外移民의 促進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直接的인 過剩人口對策으로서는 家族計劃이 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이計劃은 盛行되고 있고 또 成功한 나라의 하나로서 들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家族計劃의 成果를 올리기 위해서 서두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補完하는 對策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例를 들면 葯「루프」등의 裝置의 普及을 서두는 것도 좋지만 그와 併行해서 一般保健知識의 普及도 서둘러야한다. 왜냐하면 衛生觀念이 稀薄한 狀態下에서 行해지는 家族計劃은 도리어 만 病을 併發시킬 可能性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葯「루프」등의 裝置의 普及數字와 함께 一般保健教育의 普及程度도 家族計劃의 實施成果를 表示하는 指標로서 使用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人口에 대한 對策은 세워진다고 해도 곧 그 效果를 期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年, 20年後에 가서야 비로소 期待할 수 있는 것이며 또 人口는 매우 廣汎하게 關聯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人口對策으로서는 政治·經濟·社會에 대해서 갖는 人口의 意義를 國民各自로 하여금 意識케 하여 스스로 그것에 對處하도록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各國의 人口對策이 直接 人口에 對處하는 면에 있어서는 도리어 消極的이고 人口와 關聯을 갖는 外部 諸條件에 대해서 積極的인 것은 그때문이다. 事實 現實적으로 볼 수 있는 人口對策은 人口 그 自體에 向해지는 對策이기 보다는 人口의 過剩偏在에서 發生하는 問題의 解決을 圖謀하려는 것이 많으며 또 人口의 壓力과 關聯해서 일어나는 社會的 經濟的 諸問題에 대한 對策인 수가 많다. 例를 들면 食糧增產 失業對策 社會政策上의 施設의 強化등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過剩人口의 壓力을 완화하기 위해 移民이나 家族計劃등 消極的인 對策에 執着

(10) 이와 同一한 意見은 人口問題研究所「人口問題論集」創刊號. pp.10—1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기 이전에 積極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過剩人口에 대해 就業機會를 제공해 줄수 있는 高度成長과 아울러 食糧不足을 完化해 주기 위한 農業生産力의 增進이 앞서 追求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過剩人口壓力이 食糧不足과 土地에 대한 人口壓力面에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나 農業의 停滯性을 克服하는 努力의 如何에 따라 이 문제는 크게 完化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린 크라크」는 한 論文⁽¹¹⁾에서 世界의 農業生産力이 현재의 「덴마크」의 水準으로만 높아진다면 世界의 食糧問題나 土地에 대한 人口壓力은 쉽게 解消되어 버릴 것이라는 점을 指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農業生産力이 매우 停滯해 있는 점을 勘案할 때 「콜린 크라크」의 이 指摘은 過剩人口 문제에 對處하는 積極的인 方向으로의 解決策을 모색하는데 中대한 示唆를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過剩人口에 對處할 主된 政策手段은 高水準의 經濟成長率의 持續的인 達成과 農業發展의 方向에서 追求되어야 하며 家族計劃이나 移民등의 政策手段은 기껏해야 補完的이며 副隨的인 性格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所長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

(11) Colin Clark, Population Growth and Living Standard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August 1953.